

회원사동정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회 전기안전 촉진대회 개최

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장 張貞坤)는 동절기 전기안전 강조 기간을 맞아 전기재해 방지를 위하여 엄정한 점검과 검사를 다짐하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기재해 예방강화를 위하여 지난 11월 4일 본사 강당에서 제3회 전기안전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전기안전공사 張貞坤이사장과 정부, 전기관련기관 등 관련인사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안전공사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대국민 봉사활동 강화 및 전기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장정곤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전기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이로 인한 전기 재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촉진대회



가 그동안의 전기안전에 관한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평가·분석해서 앞으로 전기재해를 추방하는 다짐과 결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기안전관리 우수업체인 동부제강 서울공장과 현대전자산업 김해수씨에 대한 대통령 표창, 제일제당과 한화중합화학 노환옥씨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 현대석유화학과 아주대학교 병원 및 부산광역시 남구청 이경구씨 등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표창이 있었다.

시상 후에는 전기안전 강화대책을 위한 전기인 결의문 낭독과 전기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례발표 및 학생글짓기공모 대상작 수상자의 작품 발표가 있었으며 아울러 전기안전 포스터 공모 및 학생글짓기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했다.

(주)광명기전

38kV 31.5 / 40kA VCB
국내최초 개발

광명기전은 저압에서 특고압까지 중전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수배전 설비에 사용되는 진공차단기(VCB)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선구자적인 설비투자와 기술인력의 양성

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98년 10월 초 자체기술력으로는 국내 최초로 국제전기규격(IEC56)을 적용한 Medium Voltage Class의 24kV 31.5kA 1250/2000A 진공차단기를 개발하여 국내개발시험에 합격하였다. 또한 동사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약 5억원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할 결과 고차단용량 38kV급 31.5kA/40kA 진공차단기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세계적인 우수 중전 Maker에서도 한 두 회사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 동사 제품이 지난 10월에 세계적인 중전기기 인증 시험기관인 네덜란드 KEMA에서 미국규격(ANSI C 37)과 국제 전기규격(IEC 56)을 적용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더한층 경쟁력과 기술력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고차단용량을 국산화하지 못해 중요한 수변전 설비에 고가의 외국 GCB(가스차단기)를 수입하여 외화를 낭비하고 중전기 분야의 기술낙후국을 면치 못했으나 이제는 이 부문에서 최고의 제조회사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국내시장의 한국전기연구소 시험설비 및 철도청 전철 변전소에 사용되는 차단기에 납품할 예정이며 미국 우수 중전Maker에 샘플을 보낸 상태로서 연간 약 200만불 정도의 수출이 예상된다.

또한 동사는 중전기기부문에서 미국,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에 '98년도 기준 약 300만불의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는 중견 업체이다.

LG전선(주)

싱가폴에 送電케이블 공급

LG전선(대표 권문구)이 싱가포르에 대규모 電力케이블을 공급한다.

LG전선은 최근 싱가포르 전력청(Singapore Power Grid)과 1300만 달러 규모의 送電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국제 입찰로 이루어진 이번 공급계약에는 유럽과 대만의 전선업체들이 참여했는데 LG가 공사실적과 기술력에서 우위를 인정받아 최종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LG측은 밝혔다.

LG전선이 싱가포르에 공급하는 전력케이블은 22kV용 地中송전케이블로 '98년 11월부터 '99년 1월 말까지 선적을 모두 마칠 계획이며 이 케이블은 싱가포르 전역 500km 구간에 포설될 예정이다.

한편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와 함께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싱가폴은 국제 전기동 가격이 하락하고 전선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판단하고 사

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선은 이번 공급을 계기로 싱가포르 전력청이 계획하고 있는 66kV, 230kV 등 대규모 초고압송전망 공사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계 단체장간담회 개최

전기계 단체장 간담회가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새 집행부 출범과 때를 맞춰 지난 10월 29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력기술인협회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전기협회, 전기학회, 전기공사협회, 전선공업협동조합, 전기공업진흥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전기계 7개 단체의 주요임원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각 단체의 주요현안 및 단체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진행한 권용득 전력기술인협회 회장은 「국가가 발전할수록 전기와 전기계 종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전기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전기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권회장은 또 「일부 전기인들이 분열된 모습을 모여 외부로부터 불신을 받

고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기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기계의 단합을 호소했다.

한국중공업(주)

5억불 상당 대형 인도 화력발전소, 독점적 계약자로 선정

국내 최초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외 턴키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공업(사장 尹永錫)은 지난 11월 2일 인도 GVK Power社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5억불 상당의 크리쉬나파트남 "A"(Krishnapatnam "A") 석탄화력발전소(260MW급 2기) 건설과 관련, 독점적 계약자로 선정키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에서 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의 승인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인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이 화력발전소는 인도 민간발전사업자인 GVK Power社와 한중이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 인도 동남부에 위치한 안드라 프라데쉬주 넬로(Andhra Pradesh, Nellore)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한중은 이 화력발전소의 설계에서부터 주요 기자재의 제작, 설치,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일괄도급방식 (Full Turn-Key)으로 수행하게 된다. 건설공기는 1호기 35개월, 2호기 39개월로 2002년 초에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한중은 이번 석탄화력발전소를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건설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독자적인 기술로 추진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화력발전소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처음이다.

한중은 또 건설공사 이후 발전소 운영에 참여할 계획으로 현재 자본참여를 검토중에 있다.

한중 관계자는 "이번 크리쉬나파트남 발전소의 턴키 수행은 한중이 그동안 축적해 온 발전설비 제작 기술과 경험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한중은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외 발전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는 현재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전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소 건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수영전기기업(주)

LG산전 UPS 사업 인수

수영전기기업(대표 : 金學俊)이 LG산전의 UPS사업을 양수기로 전력 합의하고 UPS사업관련 자산매매 계약 및 관련 계약승계 계약을

체결했다.

LG산전은 그동안 다양한 기종의 UPS를 국산화하는 등 고급기술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전개를 추진해 왔으나,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에 적합한 사업 특성상 중소기업 영역에 적합한 업종이라고 판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5일 관련자산 및 기술자료 일체를 5억 5천만원에 수영전기에 양도를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LG산전은 관련업계에 UPS사업 양도의사를 발표한 후,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양수의사를 받아 기업재무 안정성, 기술력, 종업원 고용승계, A/S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수영전기를 최종 계약자로 확정했다.

따라서 LG산전은 관련 자산 및 기술자료 일체와 이동을 희망하는 관련인원에 대해서도 전원 인계하기로 수영전기와 합의했다.

LG산전 UPS사업팀은 SNMP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단상 경제형 UPS 및 ALL IGBT방식의 3상 UPS 100kVA급을 국산화하는 등 고급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UPS 및 전원기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LG산전은 지난번 5개 사업의 임직원 사업분할에 이어 이번 비주력사업의 양도를 통해 핵심전략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수영전기는 본 계약체결을 통해 해외제품의 수입, 판매에만 열중해 온 국내업체들보다 H/W 및 S/W 기술력 부문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 UPS 기술자립도를 한층 더 높여 세계적인 UPS 업체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한 안정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시장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주)

국내 최초 銅로트 200만톤 생산 돌파

대한전선(대표 유채준)은 최근 전선 주요소재로 쓰이는 동로트를 국내 최대 생산량인 200만톤 규모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이같은 실적은 지난 '80년 동로트 생산공장 준공과 함께 '93년 100만톤 달성 이후 5년만에 이룬 것으로 동급 규모의 설비로는 획기적이다.

원자재의 장입-주조-압연-코일라-포장에 이르기까지 일괄생산체제를 도입한 대한전선 동로트 공장은 현재 시간당 40M/T, 연간 240,000M/T 규모로 국내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초극세선용 동로트 양산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회사 동로트 공장은 컴퓨터 중앙집중장치를 통한 공정자료 분석관리, 전라인 자동화 CAST BAR의 자동 컨트롤러 등 최첨단 설비로 균일한 품

질 유지와 콤팩트하고 다양한 권취방식을 채택, 수요자가 현장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19년간의 노하우 축적과 국제품질규격 이상의 품질수준을 유지·관리, 불순물 함량이 극히 적고 표면광택이 우수한 동로트를 생산, 엄격한 규격제한을 두고 있는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원전기공업(주) 高 안전성 LBS 개발

중 원전기공업(대표 조남진)은 최근 아크 및 섬락으로부터의 안전기능을 크게 신장시킨 24kV 630A급 LBS(기중부하개폐기)의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달중에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원전기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LBS는 아크소호통을 내장해 부하차단시 발생하는 아크를 완전하게 소호함으로써 아크로 인한 인명피해 원인을 제거했으며, 상간에 절연판을 설치해 상간 섬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 특징이다.

중원전기는 이와 함께 베벨기어 메커니즘을 이용한 수동조작 방식을 사용, 1회전 조작만으로 On/Off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이 편리하며 가격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중원전기는 이 신제품을 베트남, 대만, 남미의 도미니카에 지난달부터 수출을 시작해 품질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주력해 수출해 수출 핵심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LG산전(주) 중국 심천에 주차타워 완공

LG 산전(대표 : 李鍾秀)이 중국 심천에 화남지역 최초·최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완공하고, 「深圳國際金融大廈 有限公司(심천 국제금융빌



딩 유한공사 : Shenzhen International Financial Building Ltd.)」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심천 국제금융빌딩은 심천시 상업·무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중국은행 심천지점 및 외국 은행, 외국 회사 등이 입주하여 심천을 대표하는 빌딩이다.

이번에 완공한 주차타워는 주 건물과 별도로 설치되는 독립 철탑형 병렬 엘리베이터 포크 방식의 주차 시설로 52m의 건물 높이에 주차설비 3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1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전용 시설이다. 또한 중국 현지 특성을 고려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하층부에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RV 차량(다목적 차량)을 36대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종의 기계식 주차설비 중 운송속도가 가장 빠른 최첨단 마이콤(MICOM) 제어방식을 채택하였다.

LG산전이 건립한 독립형 주차타워는 심천시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지난 '96년 말 300만 달러에 수주했다. 특히 이번 주차타워 준공으로 LG산전은 심천을 중심으로 한 화남 지역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간 200억원 규모의 중국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산전은 앞으로 엘리베이터 포크 방식과 승강행식 주차설비 등 업계 최대의 다양한 모델을 기반으로 2000년에는 중국에서 연간 3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